

門과 그 北城·南城·南西墩臺와 南甕城의 東과 西城 東將臺·東暗門·西暗門·西舖樓의 浮石에 技能을 발휘하였고, 西門의 石手 朴尙吉은一百五十二日間 長安門의 北城과 南城 北甕城 華西門과 北暗門 西城의 西暗門 西一·二雉·南砲樓·南雉 西南暗門通道 등 城서쪽부분의 工事に 종사하였고, 東門의 石手 金明漢은 六百九十四日間 勤勞하였다. 이들 三人은 京工으로 選拔된 一百六十名 중에서도 上級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다룬 石材의 數는 莫大하여 南門만 보아도 大扇單石八塊 中扇單石四塊 大缸甕石二十六塊 隱柱石二百七十二塊 大圓柱石十八塊 大·中·小塊石千五百六十七塊 大·中·小塊石八百七十七塊 大·中·小武砂石九百七十塊 長·中·小臺石이 百八十二塊 漏槽石八塊 大隅石二塊 大·中·小隊長臺石三十二塊 大·中·小步石二百七十九塊 庫莫石四十七塊 大樞石二塊 大遠山石一塊 將軍石二塊 女牆左右夾門信防石四塊 등이었다.

監督으로 致仕한 南門의 金樂淳은 百七十五日間 八達門·南西墩臺·南城東城·華陽樓角道·東城女牆을 監董한 吉州牧所屬人이고, 東門의 金箕昇은 百四十日間이 蒼龍門에만 專念하였고, 같이 일한 金燾은 講武堂後行閣龜川坊補土 東城南西城 南水門 西城의 西舖樓를 二百八十二日 동안 監督하였다. 西門의 金處漢은 三和府使를 歷任 金海府使를 지낸 이인바 安眠島伐木囑浦 治木所에서 治木監督도 하였고 北城東城 華西門 西城의 西砲樓를 二百八十日 동안 監董하였다.

刻記된 內容은 華城城役儀軌와 一致하고 있으므로 敍建當時의 銘文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字體는 楷書이다.

泰和貳年銘 高麗 靑銅半子

文 明 大

이 半子は 江原道 原城郡 興業面 出土라 傳하는 通式的 高麗金鼓로써 尙마간 形式化된 手法을 보여주고 있으나 결코 투박스럽지 않은 심세한 멋도 간직하고 있는 作品이다.

평평한 表面에는 三重同心圈을 들렀는데 二條의 內圈안에는 三十四個

나 되는 많은 小顆를 配置시켰고 一條의 中圈에는 蓮花文이라 생각되는 瓔珞形文(Y) 二十六個를 陽刻하였으며 二條의 外圈에는 特徵的 飛雲文 四片을 表現하고 있다. 裏面에는 圓味를 띤 素文의 口緣部에 一條의 口帶가 마련되었고 內徑 二四·八cm 側面에는 兩耳가 上部에서 치우쳐 달려 있으며 唯一例라 할 수 있는 唐草文이 둘러있을 뿐만 아니라 十二字나 되는 楷書體의 銘文이 二行으로 자못 稚氣넘치는 筆體로 陰刻되어 있어 特히 注目된다.

『聲壽天久萬民安泰之願以棟梁比丘前長不長』(二行)

『泰和貳年壬戌三月日記寺主重大師文損大匠初問鑄成半子一墜入重捌斤貳兩印』(二行)

이 半子の 造成年代는 泰和貳年 即 高麗神宗五年(一一〇二年)인데 梨大博物館藏 蒲溪寺盤子①와 同年이며 또한 불과 一個月 앞서 鑄成되었는데도 보다 심약스레 만들어진 것은 蒲溪寺盤子와 같이 京良工이 아닌 一地方工人의 솜씨 때문이라 생각된다. 禁口(鼓)로서 「半子」라稱한 것은 日本에 있는 正豐五年(一一六〇年) 銘半子②와 東大博物館藏 貞祐四年銘高麗靑銅半子③(一一二六年) 등과 新例로서의 出世된 貴重한 遺品으로 禁口名稱에 대해서 一聯의 系統을 제시해주고 있다.

여하튼 이 半子は 尙마간 形式化된 高麗一般式禁口이지만 심약한 手法으로 他品들과는 特異하게 많은 顆子·蓮花文이 아닌 蓮花變形의 瓔珞文·特徵的 飛雲文 그리고 側面에 唐草文 등을 配置하고 있는 것은 半子名稱과 아울러 흥미있는 問題라 하겠다.

註

① 黃壽永·「新羅高麗在銘禁口考」(海圓古稀記念史學論叢) P·三七二

② 黃壽永·「高麗正豐銘金鼓」(考古美術五一八—一九六四·八)

③ 黃壽永·「新羅高麗在銘禁口考」P·三七九

④ 黃壽永·「貞祐四年銘高麗靑銅半子」(考古美術五一—一九六四·十二)